

#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당중앙위원회 프락의 문전보초병, 조국의 최전방을 지켜선 전초병의 영예를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오 마다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혁명무력의 전투적기백이 솟아올랐다.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종대와 조국의 서남 전선을 지켜선 제4군단종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종대들이 광장을 도도히 행진해갔다.

수령보위,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원들의 가슴가슴은 혁명의 붉은 총창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당의 위업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당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 불같은 열의로 세차게 맥동쳤다.

반제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그 어떤 전쟁환경에도

대처할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춘 우리 군대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음을 과시하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종대 등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종대들과 경찰병, 도하공병, 통신병, 전파탐지병, 군의근무병종대들이 용기백배하여 질풍쳐나갔다.

일당백정예부대의 위풍을 떨치며 주석 단앞을 지나는 인민군장병들은 영광의 단상에 높이 서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시위하며 나아가는 열병종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전투기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상징하는 《70》이라는 수자대형을 이루고 경축의 축포를 터치며 광장상공을 지나갔다.

《땅크병의 노래》 군악이 진감하는 속에 최강의 혁명군대의 불패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화종대들의 장엄한 철의 흐름

이 시작되였다.

땅크, 장갑차종대, 자행포 및 방사포종대들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광장에 들어섰다.

정연하게 서렬을 짓고 열병식장을 누벼가는 무쇠철마들과 각종 구경의 자행포, 방사포들이 강철포신들을 추켜들고 무적강군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부대행진이 시작되였다.

누리에 빛나는 우리의 존엄,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전략군부대들의 용용한 흐름이 열병광장을 힘차게 누벼나갔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면불휴의 애국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위대한 대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필승

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무적의 대오, 화성포병들이 경축의 광장을 위풍당당히 지나갔다.

광장바닥에는 무적필승의 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경축 2.8》, 《일심단결》, 《결사옹위》 등의 글발들과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련이어 펼쳐졌다.

행진군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며 씩씩하게 가는 속에 광장상공에 우리의 붉은 매들이 오색부채살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